

보도 일시	2022. 6. 9.(목) 15:00	배포 일시	2022. 6. 9.(목) 15:00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국제문화과	책임자	과장 강연경 (044-203-2561)
		담당자	사무관 김휘경 (044-203-2566)

한국과 사우디, 문화를 통해 더욱 가까워진다

- 6. 8. 문체부 장관, 사우디 문화부 장관 만나 양국 문화교류·협력 방안 논의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6월 8일(수) 오후 2시, 포시즌호텔서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문화부 바데르 빈 압둘라 빈 파르한 알 사우드(Badr Bin Abdullah Bin Farhan Al Saud) 장관을 만나 케이팝, 영화, 드라마, 언어, 문화유산 등 폭넓은 분야에서 양국 문화교류의 지평을 넓히기로 했다.

박보균 장관은 먼저 사우디의 ‘비전 2030’ 정책 등에 힘입어 2019년 이후 사우디 현지에서 케이팝 공연과 한국 드라마 방영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박 장관은 “사우디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가고 싶은 나라, 친근하게 다가오는 나라, 알고 싶은 나라로 바뀌었고 특히 젊은 세대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자극하고 있다. 사우디가 세종학당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바데르 장관은 양국 관계는 오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세대들의 문화교류를 강화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음악과 영화, 디자인 등 다양한 한국 문화 분야에서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사우디 유학생을 한국에 많이 보내 한국인의 경험을 배울 수 있게 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특히 바데르 장관은 서울에 한-사우디 역사박물관을 건립할 것을 제안했고, 양국은 이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별도 붙임 현장 사진